

간절함이 낳은 기적... 남구 '1호 트램도시' 된다



트램 오륙도선 유치를 기원하는 피켓 릴레이 행사에 참여한 남구 주민과 지역 인사들.

오륙도선, 트램 공모 최종후보지 선정

(경성·부경대역~이기대 삼거리 1.9km)

내년 착공·2022년 운행... 잔여구간·우암감만선 구축 탄력

교통·관광 두 토끼 잡고 '초일류 청정도시' 도약 기대감

'간절함이 만든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남구가 정부의 트램(노면전차) 공모사업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국내 트램 1호 도시'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위탁받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수행한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사업 최종평가에서 지난 1월 25일 남구가 우선협상대상 1순위로 확정됐다.

남구가 최종 후보지로 정해짐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곧바로 국토부 연구개발사업비(국비) 11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당초 남구의 트램 오륙도선은 도시철도 경성대·부경대역에서 SK뷰아파트까지 5.15km 구간인데 '실증노선'은 전체 구간 가운데 경성대·부경대역~이기대 삼거리 1.9km으로 제한된다.

오륙도선 실증노선은 총 사업비 470억원(국비 110억원, 시비 360억원)이 소요되고 정거장 5곳을 둘 방침이다.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주차장 부지를 차랑기지로 사용해 차랑기지 확보에 별도 예산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실증노선은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설계를 마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연말까지 완공, 2022년부터 상용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루 이용객이 1만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실증노선이 상용화되면 잔여



오륙도선 실증노선 개요

- 길이 : 1.90km
- 구간 : 경성대·부경대역 → TBN방송앞 교차로 → 남부면허시험장 교차로 → LG메트로시티 교차로 → 이기대아구 삼거리
- 정거장 : 5개소(지상) / 교차로 : 5개소
- 차량기지 :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에서 사라졌던 노면전차를 무가선 저상트램으로 새롭게 부활한다는 상징성도 가진다.

이번 실증노선 공모사업에는 20여 지자체가 응모를 저울질하다 1차 평가에 5개 지자체가 지원했다. 1차 평가에서 남구, 성남, 수원 3곳이 선정됐고 이후 이들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현장실사 등 엄격한 2차 평가를 거쳐 남구가 최종 선택됐다.

2차 평가에서 각축전을 벌인 성남과 수원은 트램을 유치하기 위해 길게는 10년간 준비를 한 반면 남구가 트램 유치전에 뛰어들어 것은 민선7기 이후에 불과해 시작 전부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오륙도선 트램 특집 6~7면



■ 왜 트램인가

경제성·대량수송 가능한 가장 친화적인 대중교통

트램(Tram)은 도로 상에 부설된 레일을 달리는 '노면전차'로 무가선(wireless) 트램은 별도의 전력선 없이 배터리로 충전해 달리는 신형 트램을 말한다. 오륙도선 무가선 트램은 한 번 충전으로 35km 이상 달릴 수 있다. 트램은 지하철 건설비용이 5 내지 6분의 1 수준에 공사기간도 짧다. 유지비용 역시 도시철도의 25% 수준에 불과해 현재 전세계 40여 도시에서 트램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180개 도시에서 신규도입이 예상된다.

■ 오륙도선 트램 투입계획

- 2019.2 : 협상 및 협약체결
- 3~12 : 기본계획 및 설계
- 2020.1 : 입찰공고
- 2 : 낙찰자 선정
- 2020.3~2021.12 : 공사 착공 및 시공
- 2022.1 : 상용운영

상권 활성화 위해 2월부터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

남구 내 고정형 CCTV 한해

남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관내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30분~오후 2시까지로 남구 전역이 대상이다. 남구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단속 유예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한 뒤 3월 1일부터 전면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남구 내 고정형 CCTV는 대연동 20곳, 용호동 10곳, 감만동 7곳, 문현동 3곳 등 모두 40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보행 및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행위는 이동형CCTV와 인력을 통해 단속을 계속 시행한다. 또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지역인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곡각지, 버스정류장 주변과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자를 할 경우에는 이 시간대라도 단속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남구청장 새해 인사

사람 넘쳐나는 남구를 희망하며

사랑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2019년 황금돼지띠의 해,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북 많이 받으시고 바라시는 소원 다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민선6기가 마무리되고 민선7기 구정이 새로운 구정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출발하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남부안전면허시험장 주차장 개방, 횡단보도 앞 햇빛 가림막 설치, 버스정류소 온열 의자 등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 올해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토대로 구정목표를 실현하고 사람들로 넘쳐나는 남구를 희망하며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문화와 관광의 평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평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UN평화문화특구 남구를 세계 평화의 요람으로 만들었으며, 교육경비 확충으로 교육환경 및 교육의 질 향상과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인 ㈜부산남구미래 설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더불어 함께 잘사는 공공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조성, 남구 꿈나무종합지원 센터 건립,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노인과 여성, 아이 그리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통체증 등 심각한 교통난 해결을 위한 신교통수단 트램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주거지친환경주차장 증축 등 기존 주차장의 공간 활용 및 신규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 안전관련 협업 부서에 재난안전전문관을 지정하여 주민안전과 각종 재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시재생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에 선정된 문현혁신지구를 금융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소통과 섬김의 열린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상진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하는 공적인 일꾼이며,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하고 함께 남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소통감사담당관 신설에 따라 더 많은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으며 주민들의 고충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취임하고 지난 7개월 동안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해결해야 할 지역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구정목표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면서 우리 남구를 다시 찾고 싶은, 주민 모두가 행복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더 가까이 먼저 다가서는 구정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주시기 바라며, 질책도 해주시고,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용호동 LG메트로시티아파트 차단기 설치 관련 남구청 입장

용호동 LG메트로시티아파트가 최근 단지 내 방범강화를 위해 통합경비시스템 운영 업체와 계약을 맺고 아파트 소유도로 주요지점 8곳에 차량차단기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내용중 사실과 다른점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1. 아파트 내 도로는 남구청의 관리대상인데 도로포장 등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는 주장

☞ 도로포장 등 도로 유지관리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으며, 도로법상 도로는 고속도로(ㄹ)·군도까지이며 각각의 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G메트로시티내 단지내도로는 남구청에서 도로포장할 대상이 아닙니다.

☞ 교통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공공이 통행하는 사도)까지 도로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LG메트로시티내 단지내도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등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시설물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예산만 남구청에서 투입하여 왔습니다.

2. 지금까지 사유지라며 주차단속을 안했다는 주장

☞ 아파트내 불법주차는 장기방치차량, 차고지위반차량, 불법주정차 차량 등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주차단속 중 장기방치차량은 장기방치차량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요 아파트 주차장 관리상의 문제이고, 밤샘주차(차고지위반)는 현재도 주차단속이 가능하며, 불법주정차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과태료가 2배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참고로 교통단속은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및 마을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 늦게(2018.10.26.) 인지했다는 주장

☞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에 관한사항은 구청 직원이

2018.6.27. LG메트로가 주최한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으며, 2018.10.10.아파트 통장 간담회시 용호1동장이 참석하여 도로 차단 강행 시 마을버스 운행불가, 어린이보호구역 폐지, 교통안전시설물 철거 등을 공지하였습니

다.☞ 남부경찰서에도 2018.7.31에 LG메트로에 차단기를 설치하면 교통신호 운영지원을 못할 수도 있으며, 교통사고 및 무면허운전 발생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4. 기계경비비용 일체 선정과정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공정하게 실시하였다는 주장

☞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4조 제5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의결을 거치지 않아 LG메트로시티아파트 관리주체에 '과태료 200만원' 처분사건통지 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19. 1. 28)

5. 차단기 설치 후 유료주차장 개방하겠다는 주장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만 허용하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단,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6. 입주민 전용 노선버스 운영하겠다는 주장

☞ 셔틀버스의 노선버스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7.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및 마을버스 노선변경 여부

☞ (경찰청 협의결과) 차단기가 운영되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및 마을버스 노선은 차단기 밖으로 변경 운행해야 합니다.

2월 19일

백운포달맞이축제

- 2018. 2. 19.(화) 15:00
- 백운포 체육공원 야구장
- 축가공원, 기원제, 달집태우기, 부대행사(소원지 작성, 자선발기)

부산남구신문이 올해부터 12면으로 발행됩니다

남구청 소통감사담당관이란 3면 오륙도 가마우지 탐방 4면

남구의 소상공인 5면 이웃돕기성금 명단 10~11면